

지역 소식통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SNS 온라인 이벤트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이벤트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김제시 공식 유튜브 채널 김제지평선TV에 업로드된 「기억의와 감정의 김제치매안심센터 방문기」 영상을 시청한 뒤 치매극복을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화면을 캡처한다. 이어 구독 인증 화면을 캡처한 뒤, 두 장의 이미지를 네이버폼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총 400명을 선정해 GS편의점 모바일 기프티콘 5천원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10월 15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공식 유튜브 채널 김제지평선TV와 김제시청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 안내와 네이버폼 링크도 함께 제공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30일까지 납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 2기분 경우 자동차 5,060대를 대상으로 총 1억 7,197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료5·6 차량과 저공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1대 한정)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3년간)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탁(www.wetax.go.kr), 인터넷(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개관

전북혁신도시내 준공... 문화유산 조사·연구·보존·활용 역할·K-유산 중심 도약 기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88)가 10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준공식을 열고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조사·보존·활용의 핵심 거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허민 국가유산청장,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회의의장,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연구소와의 협력사업을 한층 더 확장할 계획이다.

면적 6,693㎡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유물 수장고, 보존처리실, 연구자료실, 전시관, 세미나실 등이 갖춰져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활용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완주군은 연구소 건립 과정에서 임시사무소 제공, 건축 심의 행정지원, 임시 전시공간 운영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신청사 준공은 그간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결실을 맺은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연구소와의 협력사업을 한층 더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도 역사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상운리 고분군 일원의 디지털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는 완주 남계리유적 순교자(윤지충) DNA 분석 및 얼굴 복원 등 공동 연구, 사발지식 대여 및 추가 연구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개관은 완주군이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 디지털 사업 및 국제적 연구 교류를 통한 완주의 문화유산이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게 적극 지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출범... 공약이행 투명성 강화

공개모집으로 30명 선발, 공약 조정 심의·최종 권고안 제시 예정



완주군이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연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와 배심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열고, 민선 8기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주민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

완주군민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ARS 무작위 추첨으로 1차 선발한 뒤, 2차 전화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앞으로 공약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안전 설명회(9월 16일) △분임토의 및 전체회의(9월 24일)를 거쳐 주민참여형 공약 조정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사항과 의견을 군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민주시민과 주민배심원제' 특강과 함께 분임 구성, 배심원단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과의 약속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 운영을 통해 더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2기 '민간기록물관리위' 본격 출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을 위해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인 제2기 김제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지역 역사, 기록학,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김제의 민간기록물 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과

의의를 맡는다. 더불어 수집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 전시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제5회 김제시 시민기록물 수집 공모전에 접수된 기록물을 심사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0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10월 시상식을 열어 부상을 수여하고, 이후 전시회를 개최해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시청 상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희용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6~2030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고소 작업 건설로봇 실증센터 구축,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 등 18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안전 설명을 듣고 사업 목적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공유재산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유익의 의장 "행정통합 논란 종결, 주민자치 대전환 시작"

완주군의의회(의장 유의식)는 10일 제295회 완주군의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의정 방향을 밝혔다.

유익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전북 전역에 내려진 호우 특보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임해 주민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민생 경제와 골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촉발한 행정통합 논란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이제 찬반 협의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오직 행정안전부의 결단만이 소모적 논쟁과 주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가 9월 이내에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입장을 공표할 것 △주민 1~2% 서명만으로 통합 건의가 가능한 현행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적이 없다"며 "이보다 더 분명한 민심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최근 김관영 도지사의 통합 홍보 논란과 관련해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익감사를 청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익의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행정통합 논란을 넘어서는 '완주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결력은 주민에게서 나오며, 주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자치"라며 △상시 공론장 운영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발안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의의회는 그 첫걸음으로 '주민자치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행정통합 논란의 핵심 의제인 지방자치, 민주주의, 지역 정체성, 지역 소멸 대응을 함께 논의하며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주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3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준비에 힘쓰는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폐회사를 마무리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 12일 개최

다양한 이동친화 행사·체험 마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2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과 산책로 일대에서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이동친화 프로그램과 체험을 마련해 금요일 오후의 특별한 행복을 선사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책 미션투어, △숲

속 보물찾기, △돛자리 영화관, △영유아를 위한 유모차 드라이브 코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국악 신동의 축하 공연도 무대에 올라,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김제가 획득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는 특별 퍼포먼스도 마련돼, 시민과 함께 아동친화도시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순동사거리~점촌삼거리 구간 가로등 설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순동사거리 ~ 점촌삼거리(1.2km) 구간 일원에 가로등 40본과 분전함 2대를 설치하는 '취약지역 인프라 강화'를 통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 8천만 원의 시비가 투입되며, 설치되는 가로등은 모

두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밝기와 효율을 높여 야간 교통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를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또, 점촌삼거리에서 애동리사거리 구간은 2026년에 가로등 설치 예산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